

“몇 語形成 接尾辭에 대하여”

- 특히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 ϕ’의 관련을 중심으로 -

金智弘*

I

한 언어가 象徵語와 接尾辭들의 結合을 구현한다고 하자.¹⁾ 이들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상징어 부분만을 독자적으로 살피고 그 特質 등을 연구할 수 있다. 둘째, 접미사 부분만을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셋째, 상징어 부분과 접미사 부분의 결합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의 방향들은 서로 제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방향을 연구의 목표로

*同門, 西江大 博士課程

본고가 집필되는 동안 Dr. Stephen L. Garrigues의 방대한 象徵語 資料를 빌려볼 수 있었기에 지면을 빌어 謝意를 표한다.

1) 상징어에 대한 定義는 편의상 恒眞命題의 형식으로 처리하여 둔다. 곧, 본고에서 다룰 접미사들과 결합 가능한 단위, 또는 접미사 의미자질들의 제약을 준수하는 단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단위라는 표현은 잠정적으로 사용하며, 準語兼資格을 부여하기로 한다). ‘-ϕ’ 접미사류의 어휘들로써 내려진 정의는 그 어휘들의 수적 범위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새 자료가 출현할 때마다 정의가 修正되어야 하거나, 조건이 添記되어야 한다. 후자쪽의 정의는 남풍현(1965)에 자세히 되어 있다. 앞으로 혼란이 우려될 때에는 상징어 부분, 접미사 부분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部分”이 붙어 있을 때에는 서로 결합되기 이전의 상태를 따로 언급하는 경우가 되겠다.

삼느냐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차원의 결론이 도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징어 부분이나 또는 접미사 부분을 자기 독자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그들의 內部 特質을 밝혀내는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양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앞서서처럼 그 내부 특질을 밝히는 작업에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상징어 부분과 접미사 부분의 결합체에서 이들의 결합을 어느 부분에다 중점을 두고 結合 樣相을 밝혀 나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즉, 이들이 서로 結合 可能한 連結體라고 한다면, 곧 이런 結合 可能性이 어디에서부터 동기지어지는지를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힘을 動因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結合할 수 있는 動因이 상징어 부분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접미사 부분에서 비롯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보적인 동인이 결합을 결정짓게 되는가 하는 따위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검 작업은 모든 결합체를 검토하고 난 뒤에 귀납적인 형식으로 動因을 유도할 수는 없다. 우리의 언어 자료가 무한히 열려 있으므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자료의 숲에 빠져 헛수고에 그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 작업은 한정된 자료에서 그런 결합 가능한 動因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검토하고 나서, 일단 연구자가 스스로 어떤 演繹의 틀을 설정하게 되면, 다시 무작위 표본 자료들을 이 틀에다 집어 넣으면서 이 틀이 과연 적당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상징어 부분과 접미사들의 結合 可能性을 접미사들의 意味資質을 설정하면서 살펴나간다. 이들의 결합 가능성이 접미사들의 속성으로부터 동기지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다.²⁾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몇 가지 단순한 요인들을 들어 보자. 만일 반대로 상징어 부분이 접미사들을 구속하고 있는 주체라고 가정해 보자. 곧, 상징어 부분 자체에 결합 가능성의 動因이 내

2) 이러한 가정이 부딪치는 첫째 문제는 ‘-ϕ’ 접미사에 대한 처리이다. 이 가정이 어려움 없이 유지되려면 모든 접미사는 모종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무의미의 ‘-ϕ’ 접미사는 언어현실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ϕ’ 접미사에다 의미자질을 배타적으로 부여한다. 이제 ‘-ϕ’ 접미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ϕ’ 접미사는 본고의 다른 접미사들이 갖고 있는 의미자질을 제외한 것으로 의미자질을 부여받는다. 후술하겠지만, ‘-ϕ’에 外延性, 다른 접미사에 內包性을 주는 것이다.

새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상징어들을 모두 검토하여 그 特質(本고에서는 意味實質만을 거론)을 살펴야 한다. 우리는 무한한 상징어의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없다. 그 자료가 '열려 있는 집합'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ϕ ' 접미사류의 어휘(상징어 부분)를 갖고 상징어의 정의를 시도한 예들이 확정적일 수 없었던 현실도 바로 이런 개방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상징어 부분에 내재할 것이라고 가정한 결합 동인도 상징어 부분의 개방성으로 인하여 한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단언적이고 체계적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 반대의 가정을 성립되기 어렵게 만드는 反例의 하나가, 상징어 부분이 접미사를 구속함에 따라, 개방된 상징어 부분의 숫자만큼 숫적으로도 유사한 개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마는 우리는 이들 접미사가 숫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제 상징어 부분의 결합 동인에 대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틀린 가정임이 드러났다. 이 가정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가정, 즉 상징어 부분과 접미사 부분이 서로 결합 가능성을 상보적으로 제약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일단 우리의 작업에서 유보시켜 두어야 한다. 상징어 부분이 한계를 지니지 않는 한 체계적으로 다루어나갈 수 없으며, 이런 속성으로 인하여 접미사 부분과 맞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배경으로써 상징어 부분과 결합 가능한 접미사 부분을 다룬다. 특히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 ϕ '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게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 관계는 接尾辭들의 意味實質을 도출함으로써 설명될 것이다. 본고는 이들 접미사에도 積極的인 機能을 부여하고 있다. 語形成 接尾辭로 부르는 이유도 이런 점을 반영한다.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접미사의 의미자질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모색을 한다. 둘째, 접미사가 실현되는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이들 접미사들이 포함 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셋째, 전체의 자료를 제6군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넷째, 접미사들의 의미자질을 도출하고 배당하여 서로의 관계를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지정한 의미자질의 타당함을 보이기 위하여, 몇몇 결합 가능한 사례를 놓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결합 불가능한 사례도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해낼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활발한 形態論의 論議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지마는 한국어의 膠着語的인 성격상, 늘 통사론

의 층위에 형태론이 가려져 있을 수만은 없다. 형태론은 기술언어학의 영향 아래 이루어진 先業을 바탕으로 다시 더 발전하여야 한다. 그 발전의 방향은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으나, 필자는 의미자질에 대한 究明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구멍은 한국어 造語論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임은 말할 것 없다. 본고는 이러한 태도로써 연구되었고, 본고의 試論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전될 수 있는 논리적 결함은 차후 보완하여 나가기로 한다.

II

그러면 접미사 부분의 意味資質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접미사를 형태론적 지위에서 接尾辭로만 인정하는 한, 이들 접미사에 어떤 독자적 어휘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 다룬 접미사 가운데, 특히 ‘-이다, -하다’는 자립 형식의 어휘인 ‘이다, 하다’와 일단 음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의미마저도 동일할 것으로 기대할 위험이 있다. 이 점은 자립적 어휘에서만 그 운용이 가능한 통사적 변형관계를 접미사에도 응용하여 보고 나서, 그 유추의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

- 1) 그는 사람이다 → 사람으로서의 그는
- 2) 그렇게 일해 → 일 그렇게 해

1)의 문장에서 ‘이다’는 ‘으로서’로 변형될 수 있다(다만, 여기서는 變形의 可能性만을 거론한다). 그러나 접미사는 아래의 예에서 보듯 변형이 불가능하다.

- 1') 망설이다 → *망설이로서

2)의 문장에서 부사어는 체언요소인 ‘일’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용언요소인 ‘해’를 수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복합어 사이를 쪼개고 삽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접미사 부분이 상징어 부분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사이에 부사어가 끼어 들어가게 해 보자.

2) 진짜 몽클하다 → *몽클 진짜 하다

그 결과는 非文으로 귀착된다. 여기서 우리는 부사어가 배타적으로 접미사 부분만을 수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출한 몇 시험만으로도 접미사 부분을 자립적 어휘와 동일한 차원에서 다룰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음성적 유사성과 文末語尾를 실현시키는 敘述的 屬性 등을 근거로 하여서는, 공시적 차원에서 이들을 완벽히 동일한 것으로 묶어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어느 基底 次元에서는 이들 접미사 부분과 자립적 어휘가 어느 일부분을 共通 要素로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共時態의 準表面 次元에서는 이들이 서로 異質的 要素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접미사가 적극적으로 자립적 형태인 어휘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다면, 이들의 의미는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의미는 어느 수준의 것일까? 만일 이들의 의미(더 명확히는 의미자질)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들이 단순히 文法的 逸脫을 방지하기 위한 문법적 虛形態라고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이 허형태의 결론은 본고의 접미사 부분의 結合 動因 가설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 된다. 우리가 검토할 자료들은 다행히 이들 접미사들이 단순한 허형태가 아님을 확실히 나타내 준다. 왜냐하면 접미사 부분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아무렇게나 상징어 부분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접미사의 실현에는 각기 모종의 제약이 있는 것이다. 접미사의 의미자질은 이런 제약을 발견함으로써 밝혀지는 것이다.

접미사의 의미자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우선 한 접미사하고만 結合이 排他的으로 이루어지는 상징어 부분들을 주목할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거기에서 어떤 공통된 특질들을 찾아볼 것이다. 이 공통된 특질이란 손쉽게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석이 요구되는 일군의 자료를 연구자가 면밀히 판독하고 나서, 스스로의 직관으로써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공통 특질의 후보들 가운데에서 제일 합당하리라고 판단되는 특질을 선택하고, 이를 연구대상의 접미사에 내재하고 있는 固有 特質 또는 그 意味資質로 對當시킬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유사한 환경 속에서 두 접미사를 대비시키며 의미자질을 대당시킬 것이다. 이렇게 한

정적인 자료로부터 채택된 자질은 다시 무작위 표본 자료에 의하여 그 包括性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 검증 과정에서 아무런 이상 없이 모든 자료를 선별하여 통과시키거나 걸러내며, 또한 왜 그것들이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어떤 것은 걸러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채택된 자질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연구자의 주관과 판단에 의하여 설정되고 채택된 어떤 자질은 연구 대상의 접미사가 갖고 있는 內在的意味資質로 확정되는 것이며, 비로소 그 자질에 객관성이 주어지는 것이다.

Ⅲ

본고에서 다룬 접미사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단 편의상 상징어 부분을 X로 표시한다. XX는 상징어 부분에 중복형이 있는 경우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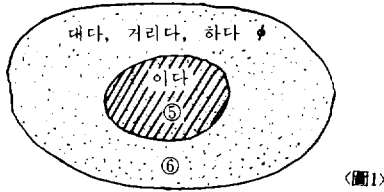
- 4) X이다
 X대다
 X거리다
 XX하다, X하다
 X∅

위의 접미사 부분들은 바로 상징어 부분에 연결된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나마 하나의 系列關係로 묶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만일 이들의 관계가 一貫性 있고 體係的인 어떠한 基準軸에 의하여 존재되고 있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이들이 하나의 系列關係에 있는 目錄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한정된 자료로써 이들 접미사 부분이 모종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드러내기로 한다. 이 자료는 뒷장에서 논의될 제6군의 자료들 가운데 임의로 선택한 것들이다.

- 5) 제1군 제1항: 반짝, 끄덕, 출렁
 6) 제2군 제1항: 얼썌, 우물, 어슬렁

이들 상징어 부분에서 4)에서 제시되어 있는 접미사 부분들을 결합시켜 보

자. 5)에서는 모든 접미사가 무리없이 연결된다. 그러나 6)에서는, 'X이다'가 실현될 수 없음을 주목하자. 그 이유의 탐색은 뒷장에서 수행되겠으므로, 여기서는 다만 그들의 실현에 따른 範圍의 大小만을 생각하기로 한다. 5)와 6)에 제시된 상징어 부분의 자료만을 놓고 접미사 실현 범위를 따진다면, 'X이다'가 제일 작다. 'X이다'는 다른 접미사사들의 실현 범위에 대하여 진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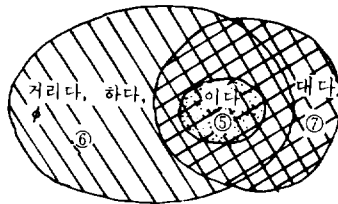


<圖1>

다음의 상징어 부분을 살피자. 여기서는 5)와 6)에서와는 달리 'X이다'만이 아니라, 'X거리다' 'X하다' 'φ'까지도 실현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7) 제2군 제3항 : 으시, 어기, 으르

7)에서는 유독 'X대다'만이 실현 가능하다. 이제까지 제시된 상징어 부분의 자료들만으로 판단한다면, 'X대다'의 실현 범위가 제일 넓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8)에 제시될 자료들에서 'X대다'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생각은 수정될 것이다. 여기 7)에 제시된 상징어 부분들은 배타적으로 'X대다'의 형태로만 실현되는 의미 특성을 지녔다고 가정하여 두자. 이들의 포함관계를 다시 수정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圖2>

다음의 자료 8)을 보기로 하자.

8) 제3군 제1항, 제2항 : 미끈, 어질, 흐늘

여기서는 'X이다'는 말할 것도 없고, 'X대다'의 실현도 부자연스럽다. 國語辭典에서는 'X대다'와 'X거리다'가 동일한 의미를 지녔다고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7)과 8)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그들은 실현 범위가 차이가 있음은 물론, 다음의 예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의미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9) ?? 수양버들이 바람에 흐늘댄다

수양버들이 바람에 흐늘거린다

10) ?? 기운이 없더라도 흐늘대지 말고 똑바로 서라

기운이 없더라도 흐늘거리지 말고 똑바로 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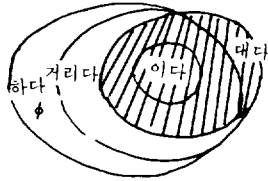
9)에서는 흐늘하는 주체가 자기의 의지가 없는 無情物이다. 반면, 10)에서는 흐늘하는 주체가 자기의 의지로 설 수 있는 有情物이다. 위 문장들의 비문성 시험은 연구자의 言語直觀에 따른 차이로 다소 판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필자에게는 모두 어색하게 느껴지고 성립될 수 없는 非文으로 여겨진다. 이런 직관이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X대다'는 그 실현상에 자기의 의지가 없는 주체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統辭的 制約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점은 후술할 부분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X거리다' 'X하다' 'X ϕ '의 실현 범위가 'X대다'보다도 더 넓다는 사실만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11) 제4군 제1항 : 넓죽넓죽, 아슬아슬, 으리으리

11)에서 제시된 상징어 부분에는 다만 'X하다'와 'X ϕ '만이 실현 가능함을 발견하게 된다.³⁾ 'X하다'의 실현 범위가 'X거리다'보다 더 넓다. 사실

3) 제4군 제1항은 마땅히 상징어 부분의 중복이 'XX하다'로 표시되어야 옳겠으나, 'X하다'만으로 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XX하다'와 'X하다'의 실현

뒷장에서 제시될 도표들에서 '×거리다'가 '××하다'의 진부분 집합으로 포함 관계를 형성함이 드러날 것이다.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은 다시 수정되어 다음과 같다.



〈圖8〉

마지막으로 '×ϕ' 접미사의 실현을 보이기로 한다. 12)의 자료들은 '-ϕ' 이외의 어떤 접미사 부분들과도 연결될 수 없는 배타적 실현의 경우이다.

12) 제6군 : 척척, 대굴대굴, 와그르르

이들 '-ϕ' 접미사가 실현된 자료들은 우선 통사적으로 한 문장 속에서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배타적 실현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1) 척척 박사

13-2) 와그르르 무너졌다

13)에서는 첫번째 것이 체언요소를 수식하고 있고, 두번째 것이 용언요소를 수식하고 있다. 만일 이들 상징어 부분에 다른 접미사 부분의 연결이 가능한 듯이 보이거나, 同音語의 형태가 연결되는 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상징어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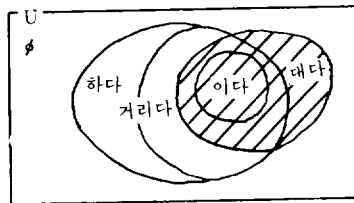
은 포함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이들의 차이는 상징어 부분의 단일성이냐 중복성이냐의 여부에 있을 뿐, 이 중복적 요소가 접미사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둘째, 본고의 가정인 접미사 부분의 動因 假定으로는 오히려 접미사의 의미자질은 동일하며 중복성의 여부는 상징어 부분의 자체문제, 즉 外延에 따른 차이로 파악되어야 한다. 뒷장에서 '××하다'와 '×하다'를 분립항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이것은 다만 작업상의 편의를 고려한 때문이지, 그들 접미사의 차이를 암시하지 않음에 유의하자.

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거나(14-1) 또는 본고에서 논의하는 접미사 부분이 아닌 경우이다(14-2).

14-1) 척척하게 잦었다

14-2) 와그르르하고 무너졌다

14-1)에서의 상징어 부분은 '주저없이 선뜻'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기가 스며들어 젖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14-2)는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접미사와는 성격이 다른 요소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직접 인용할 때이나 보고할 때에 쓰이는 형태의 것으로서, 소위 인용의 範疇에 속한다.⁴⁾ 이상에서 살핀 접미사 부분들을 상징어 부분들과의 結合을 基準 軸으로 하여 포함 관계를 나타내어 보이면 아래와 같다.



단, U는 全體
상징어 부분의 집합

〈圖4〉

- 4) 이점을 Quine(1940, 76)의 용어인 use와 mention으로 나타낼 수 있다: we mention x by using a name of x and a statement about x contains a name of x(P. 23). 위 14-2)의 '하다'는 결국 사물을 지시하는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클 짝을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인 것이다. 사물 자체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교량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예를 佛家의 句節에서 흔히 살필 수 있다. 가령 空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없는 것도 없다'는 명제로 결론지었다고 하자. 이때 앞부분에 있는 '없음'은 도구로서의 언어 자체가 없음(use)을 뜻한다. 이와 같은 유의점은 상징어가 주어부에 실현될 때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가령

(a) '척척은 주저 없이 선뜻 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자. 이를 피상적으로만 살핀다면 상징어부분이 독자적으로 또는 '- φ' 접미사를 대동하고, 체언적 자질을 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체언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척척'은 도구로서의 언어 자체만을 뜻한다. 이런 혼란을 덜기 위하여 달리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a') '척척이라고 하는 말은 주저 없이 선뜻 해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앞의 그림을 보면 서로의 포함관계가 드러나 있다. 이로써 접미사 부분들이 서로 모종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았고, 이것이 系列關係로 확립될 수 있음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 논의될 의미자질들의 관계가 구명된다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系列을 이룰 것인지도 알 수 있다.

IV

본장에서 이용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6군으로 나누었다. 그 구획의 기준은 ‘상징어 부분과 결합할 때에 실현될 수 있는 범위’를 기준 축으로 하여, 그 범위가 작은 것부터 접미사 부분의 서열을 매겼다. 그 결과 접미사들은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 ϕ ’ 등으로 배열되었다. ‘X이다’가 실현될 수 있는 자료를 제1군으로 정하였다. 제1군에서도 다른 접미사 부분들이 실현 가능한 상징어 부분들을 제1항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2항으로 분류하였다. 이 관계를 다음의 도표로 나타낸다.

(제1군 상징어 부분)

접미사	세분항	X이다	X대다	X거리다	X하다	XX하다	X ϕ
제1항		⊃	⊃	⊃	⊃	⊃	⊃
제2항		⊃	⊃	⊃	⊃	*	*

단, ⊃는 실현 가능, *는 실현 불가능

제1군의 제1항과 제2항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⁵⁾

5) 상징어 부분과 접미사 부분들의 結合 可能性에 대한 여부는 전적으로 필자의 직관에 의지하였다. 필자는 제주 지역의 방언을 母語로 익혀 왔으므로 이 방언에 의한 간섭이 그 성립성에 대한 관결에 스며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실현 가능성이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차이가 본고의 논지를 해칠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이런 차이에 대한 단적인 경우가 제2군 제2항이 되겠다. 國語辭典에서는 제2군 제2항을 모두 제2군 제1항으로 흡수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그 상징어 부분이 ‘XX’처럼 중복되는 편이 타당할 것 같아서 分立시키게 되었다. 본고에서 제시되는 자료들은 모두 필자에게 익숙한 자료로써 등재하였다. 사전에 올라 있으나 필자에게 낯설은 예들은 필자가 성립성 여부를 직관으로 시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징어 부분들도 물론 본고에서 제시한 제6군의 항목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제1군 제1항 : 반짝, 번득, 깜박, 끄덕, 꿈벅, 꾸벅, 뒤척, 들썩, 으쓱, 펄럭, 절
뚝, 끈적, 출렁, 일렁, 글썽, 흥청, 휘청
- 제1군 제2항 : 속닥, 속삭, 속덕, 노닥, 헤적, 덜렁, 술렁, 덤뵤, 서성, 만설, 지
절

제2군의 자료는 '×이다'의 실현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여기서는 모두 제3항으로 나누었다.

(제2군 상징어 부분)

접미사 세분항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하다	×∅
제1항	∃	∃	∃	∃	∃
제2항	∃	∃	∃	??	??
제3항	∃	*	*	*	*

단, ()로 둘러싼 부분은 항목설정이 불필요하나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집어 넣은 것임

제2군의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제2군 제1항 : 얼썩, 두근, 더듬, 우물, 움찔, 가물, 우뚝, 이글, 귀뚝, 투덜, 재
잘, 방실, 흥얼, 넘실, 중얼, 깽깽, 으르렁, 살랑, 아롱, 대롱, 허
둥, 어슬렁, 굵실, 뭉기적, 찌근
- 제2군 제2항 : 나불, 비비, 빈둥
- 제2군 제3항 : 으시, 어기, 으르

제3군의 자료는 '×이다'와 '×대다'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제3군 상징어 부분)

접미사 세분항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	×하다	×∅
제1항		∃	∃	∃	∃
제2항		∃	∃	*	*

제3군에 따른 자료는 아래와 같다.

- 제3군 제1항 : 화끈, 미끈, 어질, 물렁, 기웃
- 제3군 제2항 : 흐늘

제3군 제2항에 있는 자료는 앞에서(예 9,10) 다루어진 바와 같이 자기의 의지가 있을 경우는 'X대다'의 실현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의 자료는 'X이다' 'X대다' 'X거리다'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제4군 상징어 부분)

접미사 세분항 (X이다 X대다 X거리다)	X하다	X하다	X∅
제1항	⊃	⊃	⊃
제2항	⊃	*	*

제4군의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중복형식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어 부분을 'XX'로 표시한다.

- 제4군 제1항 : 어둑어둑, 시들시들, 우뚝우뚝, 차근차근, 짤막짤막, 넓죽넓죽, 길죽길죽, 불룩불룩, 아슬아슬, 어마어마, 으리으리
- 제4군 제2항 : 으시무시, 웅기중기, 아기자기, 엉키설키, 흐지부지, 부리부리, 구질구질, 몽글몽글

제5군의 자료는 'X하다'와 'X∅'의 실현만 보이는 상징어 부분이다. 여기서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분류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분류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룰 수도 있겠다.

(제5군 상징어 부분)

접미사 세분항 (X이다 X대다 X거리다 XX하다)	X하다	X∅
제1항	⊃	⊃
제2항	⊃	*

제5군의 상징어 부분에서 'Xϕ'의 실현 여부는 한 문장 속에서 그 형태가 단독으로 수식어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5군 제1항의 성립성은 특히 동작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고려하였다(예: 안개가 자욱 끼었다, 비행기가 사뿐 내려앉았다, 얼굴도 얼썩 내밀지 마).

· 제5군 제1항: 자욱, 사뿐, 얼썩, 꼭

· 제5군 제2항: 응큼, 썰렁, 알락, 얼근, 꺼벌, 말끔, 엉성, 시무룩, 수북, 다소곳
(얼얼, 땀땀, 선선, 툐툐, 곳곳, 덩덤, 똑똑, 쓸쓸)

'XX하다'와 'X하다'의 실현에서 주의할 점은⁶⁾ 본고에서 '-하다'를 상태성과 동작성 따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성이나 동작성을 본고에서는 상징어 부분으로 귀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XX하다'와 'X하다'에서 접미사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는 셈이다(주3 참조). 마지막으로 제6군의 자료를 보자. 이 경우는 배타적으로 'Xϕ'만을 실현시키는 경우이다.

(제6군 상징어 부분)

접미사	(X이다X	X대다	X거리다	XX하다	X하다)	Xϕ
제1항						⇒

6) 제4군과 제5군 상징어 부분에서 재미있는 점은 그 중복성과 단일성의 존재이다. 이들은 중복성에서 단일성이 도출된다든가 또는 단일성에서 중복성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이들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대개 여섯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XX \rightleftharpoons X$ ② $XX \leftrightarrow X$ ③ $XX \leftarrow X$ ④ $XY \rightarrow X$ ⑤ $XY \rightarrow \begin{matrix} X \\ | \\ Y \end{matrix}$ ⑥ $XY \rightarrow \begin{matrix} X \\ \leftarrow \\ Y \end{matrix}$

이 관계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어둡(어둡)·시들(시들)·휘청(휘청), ② 구질구질·얼얼·툐툐, ③ 다소곳·말끔·자욱, ④ 알뜰살뜰·울긋불긋·울퉁불퉁, ⑤ 알뽕달뽕·어긋비긋·올록볼록, ⑥ 으시무시·아기자기·얼기설기.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들이 어떠한 규칙성을 띠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우연히 실제 세계에서의 외연이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다. 이들이 여러 접미사와 결합될 때에는 어떠한 내포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이점은 후술하겠다. 한편 이런 중복성의 경우를 李翊燮(1983)에서는 反復 複台語로서 인식하고 있다.

제6군의 예들은 아래와 같다.

·제6군 제1항 : 줄줄, 차곡차곡, 대굴대굴, 와그르르, 우당탕, 콧, 휘영청

제6군의 예에서 우리는 상징어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중복성은 접미사 부분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의 중복성에 접미사 부분이 간여하고 있다면, 제6군의 자료들은 모두 중복성을 경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만이 그렇게 되어 있음은 중복성이 접미사 부분과 관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자료에서 우리는 다시 접미사 부분의 포함 관계를 확인하기로 한다. 'X이다'로 실현된 상징어 부분은 반드시 'X대다'로도 실현되고 있다(제1군 자료). 그리고 'X거리다'로 실현된 상징어 부분도 반드시 'XX하다'의 실현을 경험하고 있다(제1군, 제2군, 제3군). 여기서 우리는 다시 'X이다'⊂'X대다', 'X거리다'⊂'XX하다'의 관계를 확인한 셈이다.

이제는 접미사 부분의 意味資質을 구명할 차례이다. 여기서 제시된 자료에서 우리는 'X이다'와 'X거리다'가 각각 'X대다'와 'XX하다'의 진부분 집합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실례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포함관계는 우리에게 탐색의 실마리를 제공하여 준다. 앞으로 돌아가서 9)와 10)의 예문을 다시 상기 하며 시작하기로 한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기의 의지'를 기본 축으로 하여 'X대다'는 접미사 부분의 동작에 관여하는 주체가 자기 의지를 가져야 하고, 'X거리다'의 경우는 반대임을 언급하였다. 자기 의지란 內部的인 概念이며, 외양만으로 지시될 수 없고 단지 그 외양으로써 유추하거나 判斷하게 되는 요소이다. 이점을 본고에서는 주춧돌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 두 개념을 추출하여 독립시키기로 한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사태나 사건을 기술하는 방법을 觀察性과 判斷性으로 나누자. 여기서 관찰성이란 '나는 느낀다' 정도의 개념으로, 판단성은 '나는 판단한다' 정도로 이해하기로 한다. '나는 판단한다'는 추상 자질 속에 우리는 'X대다'와 'X이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X대다'의 有情性의 자질을 첨가하자. 그러나 이 유정성은 제1군의 자료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 무정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시 '자기 의지'와 관련될 수 있는 개념으로 '自體動作'이란 개념을 주목하기로 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모순을 빚거나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체 동작'이란 비록 의지는 없더라도 주어진 자체내의 속성으로써 동작하는 것이며, 動作의 自發性이란 측면에서 서로 공통적이다. 동작의 자발성에다 유정물이 추가되면 자기 의지라는 해석을 받게 되고 무정물이 추가되면 자체 동작이라는 해석을 받게 된다. 거꾸로 살펴서, 자기 의지란 많은 수의 자체 동작을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라고 하겠다. 유정물이 행할 수 있는 자체 동작이란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고, 무정물의 경우는 어떤 한정된 동작만이 나타난다.

그러면 'X대다'의 진부분 집합으로 존재하는 'X이다'에는 어떤 자질이 배당되는가? 이점을 우리는 'X하다'와 대비하면서 정립하여 가기로 한다.

15-1)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호하였다

15-2) 고개를 끄덕하면서 신호하였다

위의 예문에는 신호하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그 방법이 15-1)에서는 'X이다'로 나타났고, 15-2)에서는 'X하다'로 표현되었다. 'X이다'에서는 그 신호가 '連續'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X하다'에서는 단지 一回的인 끄덕임을 보여 준다. 연속적이라는 사실을 일단 의미자질의 후보로 등록하자. 여기서 우리가 찾은 연속의 자질을 제1군의 다른 상징어 부분에도 도입시켜 시험하여 보자. '연속적인 끈적임'이라는 말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연속적으로 눈물을 글썽인다'라는 말도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잘된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어색함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개념을 '幅'을 가진 持續性'이라고 바꾸어 보자. 이 폭을 가진 지속성이란 표현은 重義性을 띤다. 일정한 週期를 지니고서 반복되는 경우도 폭 자체가 반복적으로 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주기의 반복을 전제하지 않고서 한번의 주기 속에서 어떤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도 폭을 가진 지속성의 경우로 해석된다. 앞에서 연속성이란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은 그 해석이 오직 주기가 반복되는 경우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폭을 가진 지속성'이란 개념을 'X이다'의 의미자질로 확립시켜 이를 두 가지의 뜻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의 해석 방향은 각 상징어 부분이 결정한다. 한 상징어 부분이 주

기내의 지속과 어울리면 그 해석을 받고, 주기 외의 지속과 어울리면 또 다른 해석(주기의 반복)을 받는다. 그러면 'X이다'의 의미자질을 정리하여 보자. 우선 'X이다'의 실현에는 '나는 판단한다'라는 자질이 주어진다. 그리고 '동작의 자발성'의 자질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이다'의 고유 자질인 '폭을 가진 지속성'을 배당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X이다'의 의미자질이 모두 주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X대다'는 제2군 제3항의 상징어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 排他的 實現을 보이는 자료를 설명해낼 수 있도록 'X대다'에 모종의 자질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 자질의 성격은 'X대다'만을 실현 가능토록 만들고, 다른 접미사 부분의 실현은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징어 부분(으시, 어기, 으르)에 우리가 설정한 자질들을 투입하여 보자. 먼저 '나는 판단한다'의 자질이 도입된다. 이들 배타적인 예들은, 구체적 행위를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內面的인 狀態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판단한다'의 자질이 어려움 없이 해석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때로 이들 자료가 比喻性 또는 象徵性까지 띠는 경우(가령,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은 서로 으르멘다)도 내면성을 따지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두번째의 자질을 투입하기로 하자. '동작의 자발성'의 자질은 이들 자료가 유정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모두 '자기 의지'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이 자질의 시험도 무난히 통과되었다. 그러면 이들에게만 고유한 배타적 의미자질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자질은 'X'이다'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도 하여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을 주목하자.

16-1) 사람들이 복적이다

16-2) 사람들이 복적복적맨다

'X이다'는 상징어 부분의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폭을 가진 지속성을 그 의미자질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곧, 여러 폭(또는 주기)들이 연결되면서 지속성을 띠다면, 이는 반복성의 의미를 자연 배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징어가 굳이 중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라도 전체적인 결함으로써 반복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는 상징어 부분의 중복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단일한 상징어 부분도 실현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X대다'의 실현이

반드시 중복성을 전제하지는 않는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 'X이다'에서 반복성을 유도할 수 없도록 그 속성을 해체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애요소가 바로 'X대다'의 요소로 등록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X이다'의 의미자질 중 幅이라는 속성이 그 의미를 반복으로 유도하는 실체로 판단된다. 이 폭을 없애는 대신, 1회적이고 또 시작과 끝이 없는 全體性을 상정시키기로 한다. 즉 週期性和 全體性의 대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주기성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또 서로 같은 크기의 단위를 가져야 한다. 이에 대립되는 전체성은 시작과 끝이 없고(물론 하나의 단위라고 여긴다면 두 끝은 있게 마련이지만, 여기서는 반복의 의미를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므로 시작과 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두자) 持續性 또는 恒常性만이 관찰될 수 있다. 이를 수용하여 'X대다'의 의미자질을 배당하기로 한다. 'X대다'가 실현되면 처음 '나는 판단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동작의 자발성'이 주어지면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를 따져서 각각 '자기의 의지' '자체 동작' 등의 의미해석을 받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성'이라는 자질이 투입되어, 상징어 부분의 해석이 '지속성' 또는 '항상성'이라는 해석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의미자질에서 '-대다'가 중복성을 띤 상징어 부분과 실현될 때에는 해석상의 착오가 오게 된다고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유도하는 조건을 만든다. 'XX'의 상징어 부분이 '-대다'에서 실현되면, 전체성의 해석을 받고 나서, 상징어 부분의 병렬 해석을 받는다. 並列의 양식으로 두개가 나란히 전체성의 해석을 받는 것이다. 이 해석의 방법은 線條的으로 잘렸다가 다시 이어지는 다른 접미사의 해석 방향과는 다른 징표를 얻게 하는 것이다. 결국 상징어 부분의 단일성과 중복성은 그 外延의 對當物이 하나냐 둘이냐 하는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다음 'X거리다' 'X하다'의 의미자질을 배당하여 보자. 'X대다'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 의미자질은 본고에서 '나는 판단하다'로 간주하였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는 느낀다'를 추출하였고, 전자의 내부성에 비하여 후자는 외부성에 초점지어졌음을 언급하였다. 이 '나는 느낀다'라는 感覺性的 資質을 우리는 'X거리다'와 'X하다'의 공통 의미자질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 설정은 어떤 필연적인 동기에서 객관적으로 유도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임의로 설정된 것이지만, 이것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시험을 행할 것이다. 우선 여기서도 'X거리다' 'X하다'의 포함 관계를 사고의 출발적으로 삼는다.

17-1) 꾸물거리다

17-2) 꾸물꾸물하다

위의 예에서 상징어 부분의 단일성과 중복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X거리다'는 상징어 부분의 중복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X하다'는 중복성도 좋고 단일성도 좋다. 그리고 제4군의 자료에서 'X거리다'의 실현이 저지된 이유는 자료들이 모두 동작성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고려해 놓자. 이 두 가지 특성을 한데 모아서 자질을 배당하면, 우리는 '동작의 반복성'이라는 개념을 그 후보로 뽑아낼 수 있다.⁷⁾ 여기서 반복성이란 'X대다'의 경우에서처럼 並列的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線條上에서 주기 사이에 서로 이어지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자질을 제2군의 자료를 갖고 시험하여 보자. 제2군에는 모두 동작성의 자료로 되어 있다. 그중 특히 제2군 제3항의 예는 동작성에도 불구하고(으시대고 있다, 어기대고 있다, 으르대고 있다), 'X거리다'의 실현을 막고 있다. 이를 막고 있는 장애요소는 상징어 부분의 전체성 특질과 접미사 부분의 반복성 특질 사이의 갈등 또는 충돌임을 유도해낼 수 있다. 곧, 전체성에서 우리는 시작과 끝의 요소를 없앤 의미로 사용하였었다. 반복성에서는 시작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야(여기서는 線條上의 反復을 뜻함)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충돌이 'X거리다'를 제2군 제3항의 자료로써 실현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동작의 반복성'이란 의미자질이 언어현실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자질을

7) '털털거리다, 끽끽거리다'의 예를 주목하자. 이들은 표면상 'XX'의 중복성을 노출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X하다'의 형식으로 유도하여 보자. 이들은 모두 '털털털털하다, 끽끽끽끽하다' 등과 같이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털털'과 '끽끽'과 같은 예를 단일성으로 취급한다. 이때 우리는 '털털' 등이 왜 이런 유사 중복성을 띠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털털, 끽끽' 등이 하나의 주기 속에서 시작과 끝을 표시해 주는 징표로 파악한다. '털털, 끽끽'에서 앞 요소는 한 주기의 시작을 뒷 요소는 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털털털털, 끽끽끽'과 같은 것은 주기 사이의 중복성을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거리다’의 자질로 배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다’의 경우도 앞에서 ‘×대다’를 연역해내던 방식으로 의미자질을 찾기로 한다. ‘×하다’의 경우는 상징어 부분의 중복을 허락하므로, 이 자질을 1회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앞에서 ‘×대다’의 경우 반복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성이라는 자질을 설정하였었다. 이는 내부성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의미였다. 그러나 ‘×하다’는 외부성의 자질을 먼저 배당받고 있다. 이 외부성과 걸맞고, 전체성과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는 ‘구획성’이란 개념을 선택하려고 한다. 구획성도 앞의 접미사들과는 달리 두 끝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거리다’와의 관련을 나타내는 데에도 유익하다. 이 ‘구획성’의 자질은 상징어 부분의 중복성 허락하는 데에도 무리 없는 설명을 해낼 수 있다. 특히 제4권의 자료를 대상으로 살펴 보자. ‘어둑어둑, 시들시들’ 등의 상태성 상징어 부분에서 우리는 변화되기 이전 상태와 변화될 이후의 상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마어마, 아기자기, 흐지부지’ 등의 상징어 부분에서는 어떻게 구획성이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제5권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자욱, 응큼’ 등의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이들은 순수한 狀態性의 요소들이다. 이들은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이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상태에 대하여 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다. 구획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모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중 둘은 구획성이란 자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모색이고, 다른 하나는 제안된 자질을 버리고서 새로이 다른 자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획성이란 자질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모색의 방향에는, 첫째 구획성의 속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어떤 基底次元의 자질로 재조정하고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구획성이란 자질을 ‘×하다’의 주변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단서로 다시 중심적인 성격의 자질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겠다. 본고에서는 구획성이란 자질을 주변적인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 중심적 성격의 자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를 순간성과 대비하여 보자. 瞬間性이란 동일한 시작점 a와 끝점 a'의 두점이 한데 맞닿아 있거나 모아져 있는 개념이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區劃性이란 개념에서는 동일한 시작점 a와 끝점 a'의 두점이 서로 한데 맞닿거나 모아져서는 안된다.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점을 우리는 중

시하고자 한다. 이를 시작점과 끝점의 分立性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구체성이란 다시 말하면 어떤 외연의 시작점과 또 다른 외연의 끝점이 만나는 것의 의미이다. 이 區劃性을 단서로 우리는 同一 外延의 시작점과 끝점은 '×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分離되어 있어야 함을 도출한다. 이런 시작점과 끝점의 分立性은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面積으로 수용될 것이고,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時幅으로 수용될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의 자료에다 적용시켜 보기로 한다. '어머머'와 '자욱'의 경우는 시각적으로 부피나 면적을 갖는 경우가 되겠으므로 시작점과 끝점은 서로 分離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기자기'와 '흐지부지'의 경우도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離려 있어야 제 의미를 갖게 된다. '응큼'의 경우는 설명을 요한다. 왜냐하면 '×하다'의 실현이 외부적 관찰성을 드러낸다고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외부적 관찰의 틀로써 이해하고자 한다. 곧, '응큼'이라는 요소가 언어현실에서 쓰이게 되려면 우선 '응큼'이라고 지시될 만한 外樣的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전제된 外양적 행동이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은 '응큼'의 의미를 이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응큼'이란 앞 다르고 뒤 다른 행동 양식이다. 따라서 앞의 행동이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뒤 행동은 끝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상징어 부분인 '어둑어둑, 시들시들'도 역시 시작점과 끝점이 分離되어 있다. 이들이 進行적인 의미를 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다'의 의미자질로 '시작점과 끝점의 分離'을 배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다'가 실현되면, 우선 '나는 느낀다'라고 하는 외부적 관찰성이 해석에 투입되고, 다시 '시작점과 끝점의 分離'이라는 의미자질이 그 의미 해석에 투입된다.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分離성은 제2군 제3항('×대다'만의 배타적 실현)을 '×하다'로 실현될 수 없도록 막는 역할도 한다.

'×하다'의 실현을 논의하면서 함께 거론되어야 할 점이 '××하다'와의 상관 또는 차이이다. 이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하다' 접미사의 문제는 아니다.⁶⁾ 상징어 부분의 단일성과 중복성은 다만 실제 세계에서의 外延(상징어 부분의 對當物을 뜻함)과 관계가 있다.⁷⁾ 제1군 제2항은 단일성을 거부하는 예들이다. 이는 '속닥, 헐떡'과 같은 상징어 부분의 외연이 연속적인 형태로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1회적인 '속닥'과 '헐떡'을 실제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속닥하다, 헐떡하다'의 성립은 가능

하다. 그 실현이 '×하다'보다 '××하다'로 되는 이유는 현실 세계의 존재양식이 중복적이기 때문인 것이다. 제3군 제2항의 경우도 현실 세계에서 '흐늘흐늘'이 지시하는 대로 중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의 상태만을 지시할 수 있는 '흐늘'의 경우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면 당연히 '흐늘하다'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4군 제2항의 예들은 모두 이 상태 저 상태들이 존재함을 지시한다. 상징어 부분의 단일성과 중복성은 그것이 지시하는 외연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방식과 일치한다. 외연이 하나로써만 존재할 수 있으면 '×하다'로 실현되고, 겹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면 '××하다'와 '×하다'로 실현되며, 겹쳐야만 존재할 수 있다면 '××하다'로만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 ϕ '의 의미자질을 배당할 순서가 되었다. '× ϕ '의 실현을 종래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象徴的 용법 또는 模寫的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자칫 본고의 논리를 혼란 속으로 몰고갈 우려가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살핀 모든 경우가 모두 상징적 용법 또는 모사적 용법의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다. 본고에서는 대신 이를 새롭게 조명하는 뜻에서 '外延性'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 개념은 형식의미론에서 사용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세계에 한 언어 형식과 對應할 수 있는 實體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상징어와 관련되는 협의의 뜻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관형사를 없기로 한다. 모사성을 떠나는 점을 강조하여 '模寫的 外延性'이라고 부르자. 이를 '× ϕ '의 의미자질로 대당하고자 한다. 불행하게도 이 의미자질은 어떠한 시험을 거쳐서 확립될 수가 없다. '× ϕ '의 실현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만 이 언어형식으로 지시되는 實世界의 對當物을 모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의미자질을 확립시키는 데에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점은 다른 접미사와의 관련성이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 ϕ '의 의미자질을 모사적 외연성으로 지정하고, 다른 접미사들의 실현을 內包性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포성이란 어떤 외연을 가진 實體의 屬性이나 性質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을 뜻한다. 구체적인 언급이란 본고에서 거론된 '×이다, ×대다, ×거리다, ×하다'의 의미자질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연성과 내포성은 긴밀히 연관을 맺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상징어 부분과 접미사 부분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정보를

요약해 보자. 'X ϕ '가 실현되었다고 하면, 현실 세계에 모사될 수 있는 어떤 실체(외연)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상징어 부분의 정보는 실체에 대한 모사의 방법을 나타낸다. 'X하다, X거리다, X대다, X이다'가 실현되면, 실체의 외연은 이미 전제되고 대신 실체의 내포성이 부각된다. 이때 내포성은 각 접미사들의 의미자질과 等價關係에 있다. 'X하다'의 실현에서는 외연이 주어지고, 내포성으로서 첫째 '나는 느낀다'의 정보가 주어지며, 둘째 '시작점과 끝점이 분립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주어진다. 'X거리다'의 실현에는 외연이 주어지고, 내포성으로서 첫째 '나는 느낀다'의 정보가 주어지며, 둘째 '동작이 반복적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진다. 이때 동작의 반복성이란 시작점과 끝점이 분립되어 있음을 전제하므로 'X거리다'의 실현은 모두 'X하다'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X대다'의 실현이 주어지면 외연이 있어야 하고, 이 외연은 내포성을 갖는데 내포성으로 정보가 열리면서 'X하다'의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X거리다'의 정보를 받을 수도 있으며, 곧바로 'X대다'의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앞의 두 경우는 제2군 제1항의 상징어 부분들을 투입한 경우이다. 이 상징어 부분들은(얼센, 얼센하다, 얼센거리다, 얼센대다) 내포성으로 분립성, 반복 동작성, 전체성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가 되겠다. 제2군 제3항의 경우는 외연이 주어지고 곧바로 전체성이 해석을 유도하는 후자의 예가 된다. 'X이다'의 실현에는 외연이 주어지고, 내포성으로 'X하다, X거리다, X대다'의 정보가 수의적으로 주어진 다음, 'X이다'의 정보(꼭이 있는 지속성)가 주어진다. 이와 같은 양식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실체 세계의 외연적 대당물-외연-내포'가 되며, 내포는 다시 '나는 느낀다-나는 판단한다'로 구분된다. 외부적 관찰을 뜻하는 '나는 느낀다'에는 다시 '시작과 끝의 분립-동작의 반복'의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다시 내부적 판단을 뜻하는 '나는 판단한다'의 영역으로 진입한다. 내부적 판단에서는 다시 '전체성 및 동작의 자발성-꼭이 있는 지속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외연에서 내포로 가는 과정은 必須的 통과의 과정이며, 내포성에서의 진행과정은 隨意的 선택의 과정이다.

V

이상에서 설정된 접미사들의 의미자질들 사이의 관련을 구체적 사례로써 검증하기로 한다.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결합 가능의 여부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어야 그 有效性이 입증되는 것이다.

- 18-1) *그가 너무 어기
- 18-2) *그가 너무 어기한다
- 18-3) *그가 너무 어기거린다
- 18-4) 그가 너무 어기낸다
- 18-5) *그가 너무 어기인다

결합 가능 여부를 설명할 때에는 이미 설정된 접미사의 의미자질과 상징어 부분의 속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어기'라는 상징어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태도나 마음 속의 반항심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 ϕ ' 접미사는 실세계에서의 외연을 나타낸다. 우리는 어기대는 마음의 실체를 상징하여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내부적인 것으로 간주되겠기에 일단 모사적 외연의 가능성은 제외된다. '-하다'는 '외부적 관찰'(나는 느낀다)과 '시작과 끝의 분립성'에 맞는 것만 '결합 가능한 상징어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어기'는 마음의 속성이므로 외부적으로 관찰될 수 없고 시작점이나 끝점도 없다. 때문에 'X하다'의 실현도 불가하다. '-거린다'는 상징어 부분이 '동작의 반복성'을 준수할 수 있어야 결합한다. 그러나 논의대상의 상징어 부분은 주기를 가지고 반복될 수 있는 동작이 아니다. 또 주기가 전제되는 'X이다'로의 실현도 저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시작과 끝을 고려하지 않고 자발적인 요소를 따지는 'X대다'의 실현만이 가능할 뿐이다.

- 19-1) 나무들이 길죽길죽
- 19-2) 나무들이 길죽길죽하다
- 19-3) *나무들이 길죽길죽거린다

19-4) *나무들이 길죽길죽댄다

19-5) *나무들이 길죽길죽인다

19)의 예는 나무들의 모양을 나타낸다. '× ϕ '의 실현에는 모사적으로 대당될 수 있는 외연이 주어져야 한다. 여러개의 나무들을 우리는 곧 상정할 수 있으므로 그 성립은 확실하다. '×하다'의 조건은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시작과 끝이 분립되어 있어야 한다. '길죽'은 길이를 가지므로 당연히 두 끝점이 분립되어 있는 셈이다.

19-1') *나무가 길죽길죽하다

19-1'') 나무가 길죽하다

19-1')의 非文性은 '길죽길죽'에 대당하는 외연이 두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 주어가 하나의 외연만을 가지므로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대신 단일성의 상징어 부분을 가진 19-1'')은 주어부와 술어부의 외연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거린다'는 우선 동작성을 요구하는데 나무는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 '×대다'도 역시 자발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나무는 자발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다'는 주기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길죽길죽'에는 아무런 주기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하여 '길죽길죽'이 실현될 수 있는 형태는 '× ϕ '와 '×하다'가 된다. 여기서도 상징어 부분의 중복성으로 인하여 외연적 대당물이 복수성을 지니지 못하면 역시 비문으로 되어 버린다.

20-1) 귀뚜라미가 귀똥

20-2) 귀뚜라미가 귀똥한다

20-3) 귀뚜라미가 귀똥거린다

20-4) 귀뚜라미가 귀똥댄다

20-5) *귀뚜라미가 귀똥인다

20-1)에서는 상징어 부분이 단일성으로 표현되었고, 이에 따라 外延的 對

當物도 단수성을 띤다. 주어부에 복수성이 실현되면 서로 호응될 수 없어 비문이 된다.

20-1') *귀뚜라미들이 귀들

20-1'') 귀뚜라미들이 귀뿔귀뿔

20-1')에서는 주어부에 복수성이 왔고 술어부에 단수성이 왔다. 이러한 호응상의 어그러짐이 이를 비문으로 판정내리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20-1'')에서처럼 술어부의 외연을 복수성으로 바꾸면 비문성이 극복된다.

20-1''') 귀뚜라미가 귀뿔귀뿔

한편 주어부에서는 단수성이 실현되고 술어부에 복수성이 실현된 경우를 생각해 보자. 20-1''')에서는 유정물인 귀뚜라미가 자발적으로 울음소리를 반복하며 낼 수 있으므로 그 성립이 가능하다. 한마리의 귀뚜라미가線條上으로 울음소리를 반복하여 자연 외연적 대당물이 복수성을 띤다. 20-2)는 'X하다'의 실현조건인 외부적 관찰성과 두 끝점의 분립을 충족시킨다. 여기서 울음소리는 1회적인 경우이며, 상징어 부분에 중복성이 나타나려면 외연적 대당물이 복수성을 띠어야 한다. 20-3)도 동작의 반복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성립이 가능하며, 상징어 부분은 단일성만이 허락된다. 20-4)는 자발성의 조건이 유정물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자기의 의지'라는 조건으로 바뀌어진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성의 자질을 적용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상징어 부분이 'X대다'의 배타적 실현만 보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귀뚜라미의 의지, 곧 울음소리를 내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0-5)는 성립 불가능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X이다'의 실현이 幅을 가진 지속을 뜻하며 이 지속의 의미는 귀뚜라미가 속성적으로 계속 울어야 함을 지시하게 된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울지 않을 것이므로,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X이다'의 실현이 저지되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본고에서 설정된 意味資質이 접미사 부분과 상징어 부분의 결합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선별하고 더 나아가 한 문장의 非文性 여부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본고에서 수행되어온 작업으로 논의 대상의 접미사의 의미가 다 밝혀질 수는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이들을 다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것들의 본질에 더욱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의 초점은 논의 대상의 접미사들이 서로 긴밀히 관계 맺고 있음을 밝히려고 한 것이고, 이 관계를 의미자질의 설정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또 그 의미자질들이 자의적인 것들이 아님을 보이기 위하여 문법성의 사례와 비문법성의 사례들을 골라내고 설명해내도록 예시하였다. 아직 이들 접미사의 基底意味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일은 필자의 능력을 초월한 문제이다. 또한 이들 접미사와 관련하여 제기하여야 할 문제들이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필자는 본고를 이들 접미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의 디딤돌으로 삼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남풍현(1965) 15세기 국어의 음성상징연구, 국어연구 13
 민현식(1984)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유재원(1985) 우리말 역순사전, 정음사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이익식(1983) “현대국어의 반복복합어의 구조”,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분리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Garrigues(1984) “The Structure and Phonology of Mimetic Words in Korean and Japanese”, 제주대 논문집 19
 Quine(1940, 76) Mathematical Logic, Harvard University Press